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군 복음화, 새로운 열정으로



찬미 예수님!

제가 지난 해 5월에 군종교구로 파견되어 이제 1년 4개월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시기부터 저희 군종교구는 ‘군 복음화, 새로운 열정으로’라는 사목 표어 아래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군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군인주일 강론으로 인사드립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에 입대하여 규율에 따르고 전체성 안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입대하고 나서 오랫동안 끌어온 냉담을 풀고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병사들, 몰랐던 신앙의 길을 군에서 처음 접하고서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병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주일에 어디든지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1인 1종교를 권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권면’이란 타이틀 뒤에 사실상 “강제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무반(지금의 생활관)에 남아있으면 온갖 잡일에 동원되기에 주일 아침이면 성당, 교회, 법당 어디든지 가있는 것이 병사들에게는 더 편하고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 성당이 병사들로 가득했던 과거에는 군이 ‘선교의 텃밭’ 또는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매 분기별로 새로 입대하는 신세대 병사들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뚜렷하고, 또 군내의 생활패턴과 병 관리정책도 바뀌어 요즘은 종교 활동과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권한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이기에 과거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개신교)와 불교도 병사모집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일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생활관에서 쉬거나 다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군내 선교활동에 있어서 신자숫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신앙에 대한 견고한 의지와 하느님에 대한 진심어린 신뢰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세례 받은 병사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제대와 동시에 냉담하는 이들도 비일비재했고, 신앙심이 깊게 자리 잡은 이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제성이 아닌 자원해서 오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참여하는 병사들의 열성과 미사참례 자세도 우수하고, 예비자들은 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오히려 내적으로 강화된 군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민간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상의 단순함과 반복되는 생활의 패러다임 속에서 병사들은 다시금 또는 새로이 신앙을 찾고, 미사에 참례할 때 겸손한 자세로 제대 앞에 나옵니다. 변화하고 있는 군과 병사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실망하기 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열정으로 군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종교구가 더 이상 냉담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 되고 내실 있는 젊은 신앙인들을 양성하여 각 교구로 돌려보내는 신앙의 못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병사들은 인생에 있어서 유년기를 지나고 성인의 삶에 들어서는 문턱에 군에 입대하여 다시금 단순함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교회자리를 채우는 머릿수에 집착하기보다, 진실하고 내실 있는 신앙인들 특히 단순함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민간 교구공동체가 군 선교를 위하여 영적으로 물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도 군인들을 위한 목자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군종교구 비룡성당 이동명 사도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이자 군인 주일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잔치상에 기꺼이 응답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잔치에 감사와 기쁨의 예복을 갖춰입고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본기도

†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 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25장 6절-10절

안 내 :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묵 상 : 주님께서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당신 백성들이 받은 상처와 수치를 깨끗이 치워 주십니다.

화답송 :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2독서 : 필리피서 4장 12절-14절, 19절-20절

안 내 :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묵 상 : 비천함과 풍족함,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환난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2장 1절-14절

강 론 : ‘군 복음화, 새로운 열정으로’(1-2쪽)

예물준비성가 :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성가 : 163번 ‘생명의 성체여’

영성체 후 묵상

예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기쁜 얼굴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혼인 잔치를 함께 즐기고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한 이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조문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침묵>

충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다보면
하느님이 우리와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악인이라도 초대하시고
잔치상 가득히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침묵>

그러나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 예복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희망하는 순수한 마음의 예복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7번 ‘애덕의 모여’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64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6

- 일시 : 10월 16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말씀축제

- 일시 : 10월 22일(주일) 09: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내용 :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및 기타 작품 전시
- 참가비 : 1인 12,000원(도시락, 생수 제공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예비신학생 체육대회

- 일시 : 10월 29일(주일) 12: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 일시 : 11월 18일(토) 11:00 - 19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부모자식·고부간,
내적·외적·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 회비 : 5만원(어린이 동반금지)
- 문의 : 010-5490-5345

■ 故 정일우 신부의 휴먼 다큐멘터리 <내친구 정일우> 개봉

- 모든 것을 초월해 사랑을 나누었던 파란 눈의 신부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신뢰했던 벗
가난한 이웃들의 걸을 지켰던 우리 모두의 친구
<내친구 정일우>가 10월 26일 개봉합니다.
- 문의 : 시네마달 02-337-2135

<제50회 군인 주일 담화문>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50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국군 장병들, 군 간부 및 지휘관들, 군종 사제들, 군종 사목에 종사하는 수녀님들, 군종 교구민들 그리고 이들의 사목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종교구는 올해 군인 주일 50주년을 맞이하여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라는 사목 표어 아래, 군 선교를 시작했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군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열정을 갖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목교서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루카 24,47)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어 온 세상에 나아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신자 병사, 군 간부와 군 지휘관들은 자신의 동료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강조했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재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특히 군에서 세례를 받아 아직 교리지식이 부족한 병사들을 위해 군의 각 본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죄와 회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일곱 성사’,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 ‘교회에 대한 신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분 교리를 만들어 미사 후에 실시하고, 할 수 있으면 본당 단독으로 혹은 주변 군 본당과 합동으로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피정을 실시하며, 이 두 전례 시기의 피정만이 아니라 별도의 피정 계획도 갖고, 성경 공부와 성경 읽고 쓰기를 성실히 실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저희 교구는 훈련 받는 군인들의 사정에 맞게 짧으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중심을 두는 특화된 교리서 편찬을 추진 중인데, 금년 말까지 완성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군인 주일 5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군선교의 역사는 군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구와 부산, 마산 등으로 후송된 전상자들을 돌보는데 의료진과 간호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메리놀회 수녀들을 비롯한 수녀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거제도와 부산, 울산 등의 포로수용소에서 메리놀회 선교사 길 패트릭 신부와 임종국 신부, 베네딕도 수도자들의 선교와 활동으로 일찌감치 군의 역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미 군종교구장과 캐롤 안 몬시놀의 도움으로 군종제도가 1951년 2월 7일에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군 복음화의 서막을 시작하여 신부들이 군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군사목을 돕기 위하여 대구대교구와 부산교구에서 3,246만 원의 후원회비를 마련하여 군종 신부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종제도가 생겨나고 군종신부들이 활동하면서 1958년 서울대교구 박희봉 신부를 군종 신부단장에 임명함으로써 군종신부단의 토대를 만들고, 1961년 주교회의로부터 정식으로 인준된 가톨릭 군종신부단이 탄생되었습니다. 6·25전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목이 시작되었으며 가장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군사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한 번은 거쳐 가야 하는 곳이 군대이므로, 한국천주교회의 어떤 교구도 군의 복무기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가, 각 교구마다 성직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교구 내의 사목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군종신부단을 정식으로 인준해 준 것은 한국천주교회가 군사 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교회의는 1959년도 정기 총회에서 연중 1월의 첫째 주일을 ‘군목사업주일’로 제정하고 이날 전국 본당에서 군종신부 강론, 군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목사업주일은 1960년과 1961년 두 차례 시행되다가 이후에는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6·25 전쟁이 중단되자, 안달원 신부를 마지막으로 신부들이 소속 교구로 돌아가고 군사목이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가, 5·16 군사혁명 이후 다시 신부들이 활동하며 군사목을 실시하였으나,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지원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형편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군종신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던 때였기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군사목을 지속 할 수가 없었으므로 교회의 제도적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군종신부단의 존폐론이 대두되던 1967년 초 군종신부단은 당시 군종신부단 총재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께 ‘군인 주일’의 제정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67년 5월 27일 주교회의는 ‘군인 주일’을 제정하고 ‘국군의 날’ 다음 주일을 군인 주일로 정하여 모금과 행사를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68년 9월 29일 42명의 군종신부들이 군인 주일을 맞아 전국의 성당들에서 강론을 하면서 군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종신부단 총재 지학순 주교님은 그해 “가톨릭 시보” 9월 22일자를 통해 군종 신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구원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종신부가 한 사단에서 잘만 활동 할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1만 3천명의 장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 그 효과는 막대합니다. 이 1만 3천명은 전부가 다 현재 가장이거나 곧 가장이 될 사람들이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종신부들은 이 사람들을 몇 백 명씩 집단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종신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종신부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함으로써 군대 안에 사랑과 선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 시보 1968. 9. 22.)

군인이란, 우리의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며 친척이요 친구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부모, 형제, 벗 그리고 교회 목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항상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들입니다. 군종신부는, 이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장병과 군 간부 및 지휘관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요 벗이고 가장 적절한 위로자이자 상담자가 되어주며, 영신적인 목자로서 비신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삶의 표양과 하느님 말씀 선포와 기도로써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 신자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정성을 다해 영신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양들인 군인들을 위해서 군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군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군인 주일은 무엇보다 바로 군의 목자들인 군종신부들을 도와 군의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군인 주일 50주년을 맞아, 이 시간에도 묵묵히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전후방 각지의 장병들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군종신부들과 군사목에 임하는 수녀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금 겸손히 요청 드리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기도와 격려와 모든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년 10월 1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F.하비에르)주교



216

김동남 로사
(안동가톨릭문인회)

그의 옆을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로지 손 안에 든 작은 전자기기에 열광하고 몰입할 뿐이지 그가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긴 나도 우리 집에서 불과 수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의 존재를 이제야 눈치 챌 정도니 남 탓할 일도 아니다.

꽤 오래 그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다.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전신주 공사나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편리 한 대로 자리가 옮겨질 뿐 같은 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는지 그냥 가늠해 볼 뿐이다. 그런 그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니 나 스스로에게 공약한 희미한 약속하나를 그와 조우하는 순간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젓병을 떼자마자 공룡에 매료된 손자 녀석이 있는데 아이를 버릇 들인다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늘 공룡과 관련된 영상이나 장난감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녀석이 그런 부모를 이용하여 갖고 싶은 공룡 아이템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장난감보다는 공룡과 관련된 책을 한권 사주었더니 책 속에 든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지 똑같은 내용을 수 십 번 읽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 혼자 책을 읽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 손자를 보며 생각하였다. 저 녀석이 이제 한글을 알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읽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어야겠구나. 한주에 한번 아니 한 달에 한번이라도 손글씨 편지를 보내주면 녀석이 얼마나 좋아할까. 편지란 영상물이 주는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지. 편지를 받는 순간 느끼는 작은 설렘, 기쁨, 기대, 행복을 가르쳐주어야해. 그렇게 혼자 지나가듯이 한 생각인데 외롭게 서 있는 그를 보자 불현 듯 그 날의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 길로 문구사에 가서 봉투와 편지지를 사 왔다. 색색의 봉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그려진 편지지이다. 펜을 들고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보는 것이 몇 년 만인지... 편지를 정성스레 봉하고 우표를 붙이고 나는 그에게로 갔다. 보무도 당당하게.

‘아! 반갑군요. 나에게 목적이 있어 오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화들짝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나를 환영하였고 나는 조심스레 입구의 뚜껑을 위로 올리고 편지를 밀어 넣었다. “툭!”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명쾌하였다. 짐작하건데 소리를 들어보니 내편지가 그에게는 첫손님인 것 같다. 아직은 그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니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 돌아서자마자 아이에게 전화를 하였다. 오늘 내가 손자에게 처음으로 컴퓨터가 아닌 자필로 쓴 편지를 발송하였으니 우편함을 잘 확인하고 너희들이 미리 뜯어보면 절대 안 되고 손자가 직접 개봉해서 읽어보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무리 전자문명이 발달하여도 인간의 감정만은 통제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정확하게 편지를 보낸 지 이틀도 안 되어 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헌이가 할머니의 편지라고 하니 너무 좋아해요. 자기 것이라고 우린 손도 못 대게 해요.”

아이의 전화를 받고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붉은 색 바탕에 너무도 선명한 하얀 색의 넘버 216, 나는 그의 이름이 ‘216’이란 것도 편지를 넣던 날 처음 알게 되었다.